

<p>The book of Judges begins by looking backwards, and ends by looking forwards. This period of Israel’s history opens: “After the death of Joshua” (1: 1). And its final words point towards the age of monarchy, of Saul, David, Solomon and their successors: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21: 25).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triumphs and (more often) the tragedies of the time of the judges, we must begin by looking back.</p>	<p>사사기는 뒤돌아 봄으로 시작하여, 앞을 내다보며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시기는 1 장 1 절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사울, 다윗, 솔로몬과 그들의 계승자들의 왕정 시대를 암시합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삿 21:25). 사사기 시대의 업적과 (더욱 종종) 비극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 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p>
<p>Joshua was the man God chose to succeed Moses and lead the people of Israel into the promised land of Canaan. He and Caleb were the only two men in the whole generation that had been rescued from Egypt who had remained faithful in trusting God’s promises to bring the Israelites into Canaan. And so they were the only two who escaped God’s judgment of death in the desert and were able to enter the promised land. The book of Joshua charts God’s work in and through his people to keep his promises to them, to bring them into the land, to defeat their enemies, and to begin to give them blessing and rest.</p>	<p>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선택되어진 자였으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출되어진 전 세대 중 유일하게, 그와 갈렙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여전히 충실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두 사람만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던 자들이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과 휴식을 허락하기 위해,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p>
<p>At the beginning and end of Joshua, God gives specific directions to Joshua and the people which provide us with a yardstick to measure their progress in Judges chapter 1. First, God tells them the dimensions and extent of the land “I will give you” (Joshua 1: 3-4). Second, he reminds them that their military advances must be accompanied by a close and humble spiritual life – a walk with God. They are not to expect success if they do not accompany all their work with obedience to God as they meditate on his word and trust in his promises. The book of Joshua records the beginning of this process of entering and taking the land. But as Joshua nears the end of his days, there is still much to be done. The land lies open to Israel – but they still need to settle it, trusting God to push out the current inhabitants. The people still need to trust God to keep his promises, and so bravely obey him: “.....you will take possession of their land, as the Lord your God promised you. Be very strong, be careful to obey all t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Joshua 23: 5-6). One outworking of this obedience, this covenant faithfulness that God required of them, was that Israel must not enter into covenants with other nations, serve their gods, or intermarry with them (Joshua 23: 7, 12). The purpose for driving out the Canaanites was spiritual. They were to be removed so that Israel would not fall under their religious influence – “you are to hold fast to the Lord your God, as you have until now” (Joshua 23: 8). They were to build a home country to serve God in, a land where surrounding nations would be able to see the true God through the lives of his people.</p>	<p>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사사기 1 장의 그들의 진척 상황을 측정할 척도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의 크기와 정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수 1:3-4). 둘째로, 그는 그들의 군사적 전진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친밀하고 겸허한 영적 삶과 동반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모든 일이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과 동반되지 않으면, 그들은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고 취하는 이 과정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을 때, 여전히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 거주자를 몰아내어 그곳에 정착함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하고, 군세게 그에게 복종함이 필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수 23:5-6). 이 순종의 하나의 외부작업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이 언약의 충실함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른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며, 또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아야 함이었습니다(수 23:7,12).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함의 목적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쫓겨나야 이스라엘이 그들의 종교적 영향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수 23:8). 백성들의 삶을 통해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여러 민족들로 둘러 쌓여진 땅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들의 보금자리를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p>

<p>The opening chapter of Judges, read in light of and measured against the yardstick of the book of Joshua, shows us that Israel, at this point, is faithful but flawed. The foundations are being laid – and though they are strong in parts, they begin to erode from the outset. Chapter 1 tracks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9 of the tribes of Israel. Much of the focus falls on Judah, since God says in v. 2 that they are to be the first to complete the conquest of their allotted territory. The record of the victories of the tribe of Judah is very impressive. In verses 4, 8-9, 17-18, Judah went up against all kinds of Canaanite strongholds. But there are some disturbing notes.</p>	<p>여호수아서의 척도를 고려하여 비교하여 볼 때, 사사기의 시작 부분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충실하나 결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기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 그들이 부분적으로는 강하나, 처음보다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1 장은 이스라엘 9 지파의 성공과 실패를 추적합니다. 2 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할당된 땅의 정복을 완성할 첫번째가 될 것임을 말씀하심으로부터, 초점의 대부분은 유다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승리의 기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4 절, 8 절~9 절, 17 절~18 절에서, 유다는 가나안 근거지의 모든 족속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일부의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p>
<p>First, we are told in v. 3 that “the men of Judah.....said to the Simeonites their fellow Israelites, “Come up with us ..... to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This is common sense from a military point of view. But it is faithlessness, spiritually. God’s word was “Judah shall go up” – Judah fails fully to obey. They go, but they do not go alone. Their discipleship is half-way. Second, we are told that Judah conquered Bezek, and they captured the king, Adoni-Bezek. Then they cut off his thumbs and his big toes. That was a very effective way of ending his military career – he could never handle a bow or a sword again. But mutilation was a pagan practice. They were drawing their standards from the people around them. And besides, God wanted these men put to death, not mutilated. The obedience of Judah was again only partial. Third, in v. 19, Judah did not drive out the Canaanites living on the plains because they had iron chariots. Perhaps that seems logical – Judah was outgunned. But in fact, that was not the reason at all. God had promised that he would drive out the enemy. Later, in chapter 4, Deborah led Israel to victory against an army of 900 iron chariots. Judah does not trust in God’s strength, so they measure their own strength against their enemies. Common, but faithless sense, begins to prevail.</p>	<p>먼저, 3 절에서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으로 볼 때 이는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올라갈지니” 였습니다. 유다는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올라가지만, 혼자서 아닙니다. 그들의 제자됨은 어중간합니다. 둘째로, 유다가 베섹을 정복하고, 그들의 왕, 아도니 베섹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는 결코 다시는 활이나 검을 다룰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의 군인으로서의 경력에 매우 효과적인 종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체 절단은 이교도적 관행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준을 그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출해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를 원하셨지, 불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순종은 역시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19 절에서, 유다는 철 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골짜기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다. 유다가 열세했기에 어찌면 이는 타당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을 몰아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4 장에서 드보라는 철 병거 900 대의 적을 물리쳐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의 전력을 그들의 적들의 것과 비교하였습니다. 통상적이거나, 불충실한 지각이 팽배하기 시작합니다.</p>
<p>It is not our lack of strength that prevents us from enjoying God’s blessings, or from worshipping God wholeheartedly – it is our lack of faith in <u>his</u> strength. When we rely on ourselves, and base our walk with God on our own calculations instead of simply obeying, we find ourselves making decisions like the men of Judah. Othniel attacked a city in God’s strength (Kiriath Sepher) and took it. The tribe of Judah concluded that they could not do likewise in their own strength. Caleb, Othniel and Aksah show us wholehearted discipleship. The tribe of Judah shows us halfway discipleship, and Judges will show us that it leads to no discipleship at all. The warning to us is clear!</p>	<p>이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에 대한 우리 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이는 <u>그의</u> 강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대신, 우리가 스스로에게 의지할 때, ,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스스로의 계산에 근거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유다처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옷니엘은 하나님의 강력하심 안에서 기랏 세벨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의 자력으로는 똑같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갈렙, 옷니엘 그리고 악사는 우리에게 전적인 제자도를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는 어중간한 제자도를 보여주며, 사사기에서 이는 제자도가 전혀 아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경고는 분명합니다!!</p>

<p>The contagion of half-hearted obedience, of half-belief in God’s promises, spreads. The rest of chapter 1, from v. 21, catalogues the partial weakness of the other tribes. Benjamin failed to drive out the Jebusites (v. 21), while Manasseh did not drive out the pagan inhabitants of its area. Even when they did possess power to drive out the Canaanites, they preferred to use them as forced labour (vv. 27-28). Their problem was not a lack of power but a lack of obedience. The same testimony is given of Ephraim (v. 29) and Zebulun (v. 30). With monotonous regularity the clause is repeated, “They did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In three cases, the results of incomplete obedience are more obvious. The people of Asher and Naphtali did not drive the Canaanites from their territory but chose to live in a position of compromise – actually living among the Canaanites (v. 31-33). It was the tribe of Dan that knew the most bitter results of disobedience (v. 34). They were pressed into the hill country, because the Amorites wouldn’t allow them to come down to the plain. Here, there is no claim of greater military resources or numbers, rather the reason seems to be superior will-power and tenacity – greater courage. God’s people have become less brave than the people who do not know him.</p>	<p>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성실한 믿음과 미온적인 순종의 전염이 퍼져 나갑니다. 21 절부터 1 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지파들의 부분적인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냄에 실패하였고(21 절), 므낫세는 그 지역의 이교도 거주자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힘을 가졌을 때에도, 그들을 노역으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27-28 절). 그들의 문제는 힘의 부족이 아니라 순종의 부족이었습니다. 에브라임(29 절), 스불론(30 절)의 같은 증거가 제시됩니다. 단조로운 정도로 규칙적인, “그들은 거주자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라는 항목이 반복됩니다. 세 경우에 있어,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는 더욱 명백합니다. 아셀과 납달리의 사람들은 그들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타협한 입장을 선택했습니다(31-33 절). 불순종의 가장 끔찍한 결과를 알게 된 것은 단 지파였습니다(34 절). 아모리 족속이 그들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산지로 내몰렸습니다. 여기서, 이에 대한 위대한 군사적 지략이나 숫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만, 그보다, 그 이유는 우수한 의지력과 끈기-엄청난 용기일 듯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를 모르는 이들보다도 점차 용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p>
<p>In many ways, and at first reading, this is a chapter of great conquest. Israel lives in the promised land and has settled great areas of it. Two generations before, as they suffered under the yoke of slavery in Egypt the Israelites could not have dreamed that this would be the lives their grandchildren lived. But – and it is a big “but” – Israel had not fully trusted or obeyed. The people of Israel chose deliberately to obey God only partly. Rather than following the Lord wholeheartedly they compromised. In chapter 1 Israel permitted conditions which brought no immediate disaster. The impact of her failure only becomes visible in the following chapters of Judges. The idols of the Canaanites the Israelites now lived alongside lie dormant, like buried land mines, in Judges 1, ready to explode in the spiritual lives of God’s people. What began as toleration became apostasy. Living with Canaanites led to worshipping with Canaanites. Tolerate Baal’s people and sooner or later you bow at Baal’s altar. But it seemed like a rather small matter at the time. Let us take note, being “faithful in little” (Luke 16: 10) matters much in the kingdom of God.</p>	<p>여러가지 면에서, 그리고 처음 읽었을 때에, 이것은 위대한 정복의 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고, 이 땅의 거대한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두 세대 이전에, 이집트의 노예의 멍에로부터 고통당할 때만 해도, 이것이 그들의 자손들이 영위할 삶이 될 것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도적으로 오직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보다,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1 장에서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재앙을 야기하지 않는 상황을 허용합니다. 실패의 영향은 오로지 사사기의 이어지는 장에서 가시화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은 1 장에서 마치 지뢰를 파묻은 것처럼 동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폭발하기를 준비중입니다. 어떻게 관용이 배교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사는 것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예배함을 이끌었습니다. 바알의 민족을 용인하고 이내 바알의 제단에 절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는 다소 작은 문제였던 듯 싶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눅 16:10) 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크게 문제됨에 주목하십시오.</p>
<p>When read through the lens of the book of Joshua, we can see the halfway discipleship on display in Judges 1. But when read in isolation, there do seem to be very plausible reasons for why the Israelites did not succeed in their campaign – for example, how could they drive out iron chariots, when they had none? But suddenly, as we come to the beginning of chapter 2, we are confronted and shocked by God’s assessment, as “the angel of the Lord</p>	<p>여호수아서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 볼 때, 우리는 사사기 1 장에 어정정한 제자도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이를 읽을때,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들의 캠페인에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철 병거를 몰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불현듯, 2 장의 시작에서 보듯이, 우리는 “여호와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2:1)라는 하나님의 평가와 맞닥뜨리고 놀라게 됩니다. 이 사자가</p>

<p>went up from Gilgal to Bokim and said.....” (2: 1). The route the angel takes is important. Why did he go up from Gilgal? Because it was in Gilgal in Joshua 5 that the people made a covenant with God, and where he said: “Today I have rolled away the reproach of Egypt from you” (Joshua 5: 9). This was the place where God had forgiven their sin, bound them to himself as his people, and entered into relationship with them by grace. So when the angel comes from Gilgal, it is a reminder to the Israelites that they are saved by grace. It is a reminder that the Lord is a saving, promise-keeping, faithful God.</p>	<p>취했던 경로는 중요합니다. 왜 그가 길갈로부터 올라왔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5 장에서,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길갈이며, 그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수 5:9)라고 말씀하신 곳이 길갈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곳이며,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구속하신 곳이며, 은혜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은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자가 길갈로부터 왔을 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은혜로 구원되어졌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은 구원하시며,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상기시켜줍니다.</p>
<p>And the God of grace’s assessment of his people’s performance is scathing – “Yet you have disobeyed me” (v. 2). How has Israel disobeyed God? Through what they have done – they made “a covenant with the people of this land” (Canaan), despite being told “you shall not”. And through what they have not done – they have failed to “break down their altars” (v. 2). This is the purpose of the campaign, isn’t it? The purpose is to cleanse Canaan from idols, so that Israel is able to live in covenant faithfulness to the Lord. By allowing the Canaanites to continue to live in the land, or by making covenant agreements with them, the end result is that idols are being worshipped in the midst of the Israelites.</p>	<p>그의 백성들의 성과에 대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평가는 통렬하십니다. –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2:2).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행하였던 것들을 통해 볼 때 - “너희는 하지 말지어다”라고 당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가나안)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들을 통해 볼 때 - 그들은 “그들의 제단을 헐라”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2:2). 이것이 이 싸움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우상으로부터 정결케하여, 이스라엘이 주께 충실한 약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그 땅에 사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또는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그 마지막 결과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숭배받게 됩니다.</p>
<p>God wants Lordship over every area of our lives, not just some of them. God wanted Israel to clear the whole of Canaan so that his people would not end up living with idols as well as with him. That they did not shows that, although they had not wholly rejected God as their God, they had not wholly accepted him, either. This halfway discipleship and compromise is depicted throughout Judges as something which cannot last. Ultimately, either all of our life is given to God in grateful, loving obedience or none is. Part-obedience, as we will see, tends toward non-obedience.</p>	<p>하나님은 단지 일부분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체를 쫓아내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우상과도 함께 살게 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그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통틀어, 이 어정쩡한 제자도와 타협은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감사와 애정어린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러지거나 또는 그렇지 않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바와 같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p>
<p>In Judges 1: 19, we read that the Israelites “were unable to drive” the Canaanites out. Judges 2: 2 is a clear contradiction of this claim. Essentially, the Israelites said “<u>We could not</u>”. And God answers here, “<u>You would not</u>”. It is worth asking ourselves: “Where am I saying “I can’t” but God is saying “You won’t”? Israel’s failure to obey was based on what they saw as good reasons – God said they were flimsy excuses. God will never put us in a position where we cannot obey him. So these verses are very searching and challenging to apply to ourselves. There may be all sorts of things in our lives which we think we are unable to do, but which actually we are refusing to do. Much of the book of Judges shows how God is faithful to us despite our disobedience – that is comforting. But Judges also shows us that God in his grace will insist on</p>	<p>사사기 1 장 19 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내쫓지 못함”을 봅니다. 사사기 2 장 2 절은 이러한 주장에 분명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으나, 하나님은 여기서 “너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치있는 물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는 하지 않을거야”라고 말씀하실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들이 타당한 이유라고 여겼던 것들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이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를 결코 두지 않으실 것 입니다. 때문에 이 구절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함에 매우 날카롭고 도전적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종류의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사실 이는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는 것들입니다. 사사기서의 많은 부분은</p>

<p>removing our self-deception about our motives and actions.</p>	<p>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사사기는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자기 기만을 없애기를 주장하심을 보여줍니다.</p>
<p>There are 3 general categories of “can’t” justifications for disobedience:  <b>1.Forgiveness:</b> “I can’t forgive this, or him, or her”. But God commands forgiveness (Matthew 18: 35). So we can determine to put aside anger and soften our hearts with the knowledge of the gospel of grace, and act as though the wrong had not happened. When we say “can’t”, we mean we “won’t” – that we want to hang on to our anger, our bitterness, our “right” to get even, under the excuse of being “unable”.  <b>2.Difficult truth-telling:</b> “I just can’t tell him the truth. It would destroy him/or me.” God tells us to “speak the truth in love” in the family of God (Ephesians 4: 15, 25). Often we are excusing cowardice or pride under “can’t”. What we really mean is: “If I tell him that, he may not like me anymore. I would be humiliated. He would be upset. I won’t risk that cost – I would rather disobey”.  <b>3.Temptation:</b> “I can’t resist doing this, though I know it is wrong.” We must be careful here, because sin has addictive power. It is true that we may not be able, through sheer willpower, to stop doing something by ourselves. But we can get help, admit our problem, humble ourselves, cry out to God for mercy and transformation, become accountable. God always gives us a way out – no sinful thought or action is inevitable or irresistible. The Bible assures us: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1 Corinthians 10: 13).</p>	<p>여기 불순종에 대한 “할 수 없음” 정당화의 3 가지의 일반적인 범주가 있습니다.  <b>1.용서:</b> “나는 이것을, 그를 또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마 18:35). 그리하여 우리는 화를 접어두기로 하고, 은혜의 복음을 앎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마치 잘못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는 “하지 않겠다”를 의미합니다. - 우리는 “할 수 없음”이란 핑계로, 우리의 화, 우리의 쓰라림, 되갚기 위한 우리의 “권리”를 고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b>2.힘겨운 진실 말하기:</b> “나는 정말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를 또는 저를 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를 권고하십니다 (엡 4:15,25). 종종 “할 수 없음”이란 핑계로, 자만 또는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뜻하는 바는 “만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말한다면, 그는 더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창피해질 것이고, 그는 화가 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 나는 차라리 불순종할 것입니다. “입니다.  <b>3.유혹:</b> “이것이 틀렸음을 알지만, 나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중독적인 힘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대단한 의지력만으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그만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자비와 변화를 부르짖고 책임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 이것이 죄가 되는 생각 또는 행동이 아님은 당연하고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고전 10:13).</p>
<p>How do we treat our “wont’s”? God sees that any failure to obey is a failure to <u>remember</u> God is the God who rescues – “I brought you up out of Egypt” (Judges 2: 1). And God is the God who remains faithful – “I will never break my covenant with you”. The root of our disobedience is essentially failing to remember who he is. The Israelites had failed to do this. And the consequences were clear, and catastrophic. As the angel of the Lord says, “therefore” – because of your covenant-breaking disobedience – “I tell you that I will not drive them out before you; they will be thorns in your sides and their gods will be a snare to you” (v. 3). This is a very illuminating description of what idolatry is, and does. Idolatry is making a good aspect of creation – marriage and family, work or study, and so on – into the ultimate source of security, identity and power. And so false gods are a thorn.</p>	<p>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다루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불이행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u>기억하지</u>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삿 2:1).”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불순종의 근원은 근본적으로 그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하고 비극적입니다.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 언약을 어기는 불순종 때문에 -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2:3). 이것은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행하는지 대해 매우 이해를 돕는 묘사입니다. 우상숭배는 결혼, 가족, 일 또는 학업 등의 창조의 좋은 양상을 미래를 위한 보장, 신분, 권세의</p>

<p>When we make something into an idol, it continually makes us miserable. If our children are our false god, then when their lives are troubled, we will lose our joy. And even when their lives <u>might become</u> troubled (which is all the time!) we will worry and lose our joy. And idols are snares. They trap us. When we make something into an idol, it binds and enslaves us. We have to have it, so we cannot say “No” to it. This is why many people work too hard, sacrificing family, friendships and health at the altar of career. Or why others give themselves to certain relationships that are destructive.</p>	<p>궁극적인 원천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들은 가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화할 때, 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우상이라면,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삶이 <u>고통받게 될지도 모를 때</u>(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의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때, 이것은 우리를 묶고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만 하며,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라는 제단에 가족들, 교우 관계, 그리고 건강을 희생하면서 지나치게 일하는 이유입니다. 또는 다른 이들은 파괴적인 어떤 관계에 스스로를 내어주는 이유입니다.</p>
<p>When the people realized what God was saying, they began to weep and offered sacrifices to the Lord. This first post-Joshua generation have not fully turned away from the Lord, though they have failed to obey him fully. They are truly half-hearted disciples- and this leaves them and their children surrounded by thorns and snares, by the constant temptation to compromise in their love for and obedience to the saving, faithful God. There is no joy in half-hearted spiritual experience. If as Christians we try to walk the tightrope of compromise and partial obedience, we will not know spiritual victory and God’s blessing. We will know the bitterness of defeat and frustration in our Christian lives.</p>	<p>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흐느끼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첫 다음 세대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등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미온적인 제자들이었으며, 이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가시와 울무에, 그들의 구원자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타협하는 끊임없는 유혹에 둘러 쌓인 채 남겨지게 하였습니다. 성의가 없는 영적 체험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만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타협과 불완전한 순종의 줄타기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영적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리스천 삶에 있어 패배와 좌절의 쓴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p>
<p>There is great tension between God’s “I said” in 2: 1 and his “I tell you” in 2: 3. God is saying to his people: “You have put me in an impossible situation. I have sworn to bless you as my beloved people, and sworn not to bless you as disobedient people. How am I to solve this dilemma?” On the one hand, God is holy and just and cannot tolerate or live with or bless evil. On the other hand, God is loving and faithful and cannot tolerate the loss of people to whom he has committed himself. This tension will keep us in suspense throughout Judges. Will God finally give up on his people (but then what of his faithfulness)? Or will he finally give in to his people (but then what of his holiness)?</p>	<p>2 장 1 절의 하나님의 “내가 이르기를”과 2 장 3 절의 “내가 말하기를”사이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두었다. 나는 너희를 나의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축복함을 맹세하였고, 불복종의 백성으로 축복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내가 어떻게 이 모순을 해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성스러우시고 공정하시며 악을 용인하시거나 함께 하시거나 축복하실 수 없으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신실하시고 그가 입장을 표명했던 백성을 잃어버림을 견디실 수 없으십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틀어 마음을 줄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게 될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의 신실하심은 어찌 됩니까?) 또는 그는 결국 그의 백성들을 받아들일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의 거룩하심은 어찌 됩니까?)</p>
<p>It is only on the cross of Calvary that we can understand how God is able to resolve this tension. On the cross, our sin was given – imputed – to Jesus, so that his righteousness could be imputed to us. On the cross,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2 Corinthians 5: 21). On the cross, God poured out his wrath on his people in the person of his Son. He satisfied both justice, because sin was punished, and loving faithfulness, since he is now able to accept and forgive us. This is the only way</p>	<p>하나님께서 이 긴장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지를 이해하는 것은 오로지 갈보리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귀속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한 진노를 그의 아들에게 쏟아 내셨습니다. 죄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공의와 사랑의 신실함 모두를 충족시켰으며, 때문에 그는 이제 우리를 받아들이고</p>

the tension of Judges can be resolved - the only way God can love us both conditionally and unconditionally. Without the gospel of Christ crucified, we will always either complacently give in to sin (because of the unconditionality of God's promises) or live under a burden of guilt and fear (because of their conditionality). The cross of Christ is where we find the tension resolved, to that we are able to live forgiven, obedient lives despite also living sinful, disobedient lives. The cross is the place where we find the freedom to accept ourselves without being proud, and to challenge ourselves without being crushed.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긴장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또는 무조건적으로 모두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없이, 우리는 언제나 안주하듯이 죄에 굴복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무조건 때문에), 또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부담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이러함의 조건 제한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의 삶, 불수중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있는 긴장이 해결된 곳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거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받아들일 자유를 찾는 곳, 깨어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도전할 수 있는 자유함을 찾는 곳입니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